



“5선발은 내 것” 힘찬 새 출발

KIA 임준혁 “경쟁 통해 선발 차지...체력 키워 지난해보다 많은 이닝 소화할 것”

“선발? 경쟁 중입니다!”

KIA 투수 임준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2015시즌이었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시작했던 지난해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스피드를 버리고 컨트롤을 선택했다.

큰 결심 속에 변화를 감행한 임준혁은 자신을 알아주는 지도자의 믿음 속에 팀에서 세 번째로 많은 118.2이닝을 책임지면서 9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1억3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내면서 13년 만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지만 임준혁은 2015시즌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다시 출발선에 섰다는 임준혁이다.

임준혁은 “캠프를 치르는 마음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다. 어차피 또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자로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선발 대란 속에서 ‘깜짝 스타’가 된 임준혁은 꾸준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선발이라는 자리는 경쟁을 통해 다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올 시즌 KIA의 선발진은 한층 단단해졌다.

국내 복귀 후 마무리로 위명업을 끝낸 에이스 윤석민이 원래 자리인 선발로 돌아갔고, 헥터와 지크 새 외국인 용병이 각각 43번과 28번을 맡고 ‘호랑이 군단’의 선발

진 두 자리를 차지했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까지 이미 선발 네 자리의 주인공은 결정됐다.

남은 한 자리. 지난해 성적 만으로는 임준혁의 자리지만, 아직 캠프는 초반이다. 실전 무대에서 임준혁은 다시 한 번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 마무리 캠프에 앞서 김기태 감독은 “너의 경쟁자를 만들어 간다”는 농담 섞인 진담으로 임준혁에게 경쟁을 주문했다. 마무리 캠프를 쉬어간 그는 스프링 캠프에서 후배들과 다시 경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준혁은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조금 불안하기는 했다. 뭔가 잃을 게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옛날의 좋지 않았던 모습

으로 돌아갈까봐 그게 불안했다. 그래도 지난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요령을 알게 됐고 경쟁도 해봤다”며 “캠프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 무조건 체력이다. 경쟁을 통해 선발 자리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는 많이 던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스프링 캠프의 느낌을 살리는 게 임준혁의 또 다른 목표다.

임준혁은 “지난 시즌 때보다 스프링 캠프 때 피로감이 훨씬 좋았다. 지난해 때던 것만 같으려고 하고 있다. 일본 가기 전까지 그 모습을 찾고 실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이나 소프트뱅크나 이대호 ‘운명의 한 주’

日 언론 “소프트뱅크, 30일까지 잔류여부 결정하라”

무척 신분인 이대호(34)가 29일(이하 한국시간) 귀국한다. 그때까지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마치고, 기본 좋게 귀국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지난 4일 미국 애리조나로 떠날 때 세운 계획이기도 하다. 이대호는 현재 한국프로 야구 시절에 뛰었던 롯데 자이언츠 애리조나 캠프에서 함께 훈련 중이다.

이대호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맡은 ‘몬티 스포츠 매니지먼트그룹’ 관계자도 애리조나에 머물며 미국 에이전시 MVP 스포츠그룹과 메이저리그 구단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장기전을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흘렀다. 미국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대호는 최근 미국 언론이 집계하는 ‘시장에 남은 FA 선수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앞순위 선수가 계약에 성공하면 이대호의 순위는 올라간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대호의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재계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일본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이대호에게 30일까지는 잔류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2월 1일에 미야자키 스포링캠프를 시작한다. 이대호가 이번 주 안에도 소프트뱅크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퇴로’도 사라지는 만큼 더 간절하게 메이저리그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메이저리그에서 2월 이후에 새 동지를 찾는 FA 선수들은 꽤 많다. 성공사례도 있다.

MLB닷컴은 “2013년 말론 버드는 2월 2일 뉴욕 메츠와 계약해 그해 24승리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저스틴 터너가 2월 7일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입단해 팀 타자 중 두 번째로 높은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올렸다.

지난해 크리스 영은 3월 7일까지도 계약을 마치지 못했지만 월드시리즈 1차전 승리투수가 됐다”고 늦게 FA 계약을 한 선수의 성공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 새 대에 적응해야 하는 이대호는 최대한 빨리 행선지를 정하는 게 유리하다. /연합뉴스

신태용 감독 “카타르전 승리 요건은 집중력·정신력”

내일 새벽 AFC U-23 챔피언십 4강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최대 고비인 카타르와의 4강전 승리의 관건은 집중력과 정신력으로 주목됐다.

신태용 감독은 25일(한국시간)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요르단에는 선취골이 중요했지만 카타르와의 경기에선 집중력과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신 감독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팀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감독이 집중력과 정신력을 강조한 것은 한국이 8강전에서 후반들어 급격하게 흔들린 것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진출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선 “특히 2012년 런던 올림

픽에서 메달을 땀기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메달을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동기부여도 되고 부담도 되지 않겠지만 감독 입장에선 그런 부담을 떨쳐내고 내일 한경기에 모든 힘을 쏟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상대팀인 카타르에 대해선 “카타르는 최고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고 홈팀이라는 이점까지 있다”며 “또한 팀 전력에 안정적이어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번 대회에서 내가 본 팀 중 카타르가 가장 잘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8강 상대인 요르단에 대해 침대축구라고 평가한 신 감독은 카타르에 대해선 “홈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사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매너 있는 경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한편 카타르의 펠릭스 산체스 감독은 한국에 대해 “아주 공격적인 팀이고 정신력과 기술도 좋다”며 “강팀을 상대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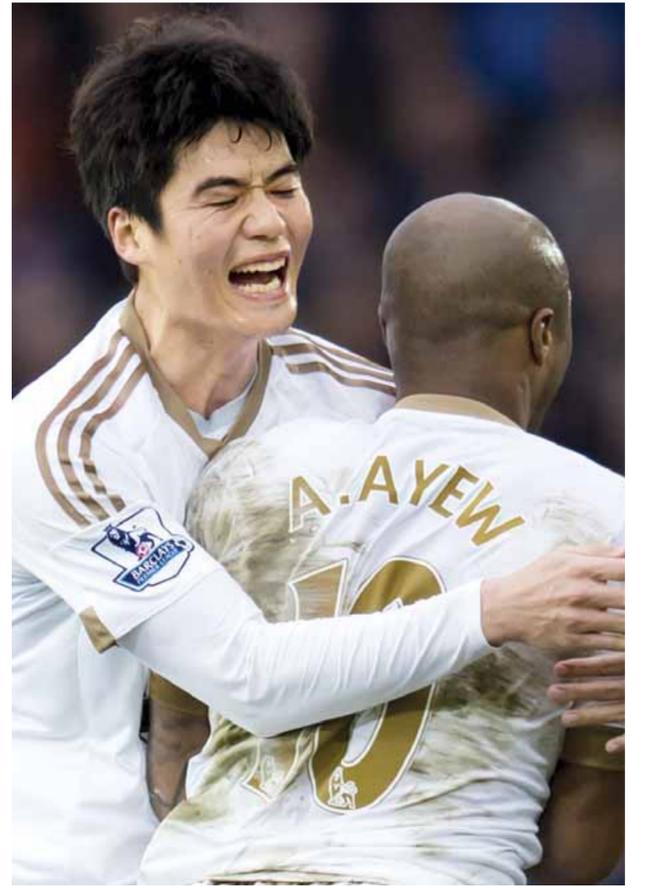
신태용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카타르와의 4강전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사드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오른쪽은 산체스 카타르 감독 /연합뉴스

만급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체스 감독은 카타르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주장 아브델카림 하산의 발목 부상 회복 여부에 대해선 “내일 출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진 장신 공격수 문타리에 대해선 “아쉽지만 문타리 말고도 22명의 선수들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에버턴 FC와 스완지 시티 AFC 간 영국프로축구리그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안드레 아예우(스완지·오른쪽)가 득점 후 기성용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값진 생일 선물’

EPL 23R 선발출전...스완지 2-1 승 이끌어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7·스완지 시티)이 생일을 맞아 팀 승리로 기분을 냈다.

기성용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파크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스완지 시티의 2-1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1989년 1월 24일생인 기성용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전·후반 90분을 모두 소화하며 자신의 생일을 팀 승리로 장식했다.

기성용은 19일 왓퍼드와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바 있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1골, 1도움의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 2연승을 거둔 스완지 시티는 6승7무10패, 승점 25를 기록하며 20개 구단 가운데 15위로 올라섰다. 6승11무6패(승점 29)의 에버턴은 12위에 머물렀다.

스완지 시티는 전반 17분 길비 시쿠르드 손의 페널티킥으로 먼저 한 골을 넣었으나 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잭 코크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했다.

1-1로 팽팽한 상황에서 스완지 시티는 전반 34분 안드레 아예우의 결승골로 다시 앞서 나갔다.

지난 18일 프란체스코 귀톨리(이탈리아)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스완지 시티는 귀톨리 감독이 벤치를 지킨 첫 경기에서 승리했다.

연합뉴스

이승우·백승호 후베닐A 출전

이승우(18)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U-19) A팀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FC바르셀로나 후베닐A는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나코르에서 열린 마나코르와 2015-2016 스페인 프로축구 디비시온 데 오노르 그룹III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3으로 비겼다. 이승우는 선발로 나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고, 함께 선발 출전한 백승호(19)는 후반 22분 카를레스 페레스와 교체됐다. 두 팀은 전반에만 5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였다.

이승우와 백승호는 골을 넣지 못했으나 징계 해제 이후 꾸준히 경기에서 출전하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장학금 수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5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주재하고 체육인재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광주시 제공>